

점포창업자의 창업 전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이 점포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춘화¹, 강병오^{1*}, 윤형보¹
¹중앙대학교 창업학과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tore Entrepreneur's Start up Education and Experience before Start up to Performance of Stores

Choon Hwa Kim¹, Byung Oh Kang^{1*} and Hyoung Bo Yun¹

¹Entrepreneurship,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영업의 높은 실패율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영위에 기여하고자, 중요한 창업 성공요인인 사전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이 실제 점포의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사전에 실전경험을 해볼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학계의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점포 창업자의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이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을 함양해 최종적으로 점포의 운영성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습교육은 창업스킬에, 이론교육은 창업가정신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현장체험은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은 점포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문적 시사점 외에, 점포창업자의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empirical results of correlation between start up education and experience before start up of a self employer entrepreneur with store and performance of the entrepreneur's store. Many latent self employers are lacking in education and experiences for start up. According to the result, first, practical education on start up influenced on entrepreneur's start up skill, and theoretical education influenced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Second, entrepreneur's experience before start up influenced on both start up skill and entrepreneurship. Third, start up skill influenced on both financial and non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repreneur's store. Finally, entrepreneurship influenced on both financial and non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store.

Key Words : Entrepreneurship, Spot experience, Start up education, Start up skill, Store performance

1. 서론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600만 명 선으로 그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청년 실업자, 주부 창업희망자도 꾸준히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

다. 이에 비해 우리 경제는 구조적 성숙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이 한계에 봉착해, 이미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영업 창업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 후 1년간

*Corresponding Author : Byung Oh Kang(Chung-Ang Univ.)

Tel: +82-2-501-1210 email: kbo65@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5, 2013

Revised March 6, 2013

Accepted March 7, 2013

생존하는 비율은 약 70%, 2년간 생존하는 비율은 약 55%, 3년간 생존하는 비율은 약 45%에 불과하다.

이러한 높은 창업 실패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창업자의 사전 준비부족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인데, 창업역량 없이 너무 쉽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시장조사 및 사업아이템 선정,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인력채용 및 관리, 재무 및 회계, 세무 및 법률, 마케팅 등 모든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1]. 특히 점포창업의 경우 상권 및 입지 분석 능력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창업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도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자영업 창업자의 역량은 사전 창업교육과 창업자의 경험에서 함양된다. 창업교육이란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총칭한다[2].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교육만족, 학업성취, 현업적용을 거쳐 교육성가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3]. 창업교육의 경우 그 효과는 창업자의 역량을 높여 궁극적으로 창업실패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창업 전 일정기간 현장에서의 업무 경험 역시 창업자의 역량을 높여 준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함으로써 얻은 노하우는 창업 시 발생하는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다. 체험은 말이나 글로 배우기 어려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용한 학습방법의 하나로서, 실제로 체험은 창업 성공요인의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4].

하지만 국내 자영업 창업자의 경우 이러한 창업교육이나 현장체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2006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가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창업 성공·실패 요인 조사’ 결과에서, 창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철저한 준비기간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29.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준비기간 동안 예비창업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일정기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 숙지’를 꼽은 응답자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창업 전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이 창업자의 역량을 높여 자영업의 실패율을 낮추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 및 공공 창업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자영업에 관한 학계의 연구도 아직 창업현장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창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obinson and Sexton(1994)은 자영업자가 창업교육을 받을수록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고[1], Raichaudhuri (2005)는 창업교육이 창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5]. 하지만 창업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해 창업교육의 효과를 세밀하게 다룬 연구나 창업교육이 자영업 창업자의 점포 운영성과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장체험에 관한 연구 역시 미흡하다. Robinson and Sexton(1994)은 자영업자가 사전 업무경험 및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자영업자의 창업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1], Cardon and McGrath(1999)는 자영업 창업자의 과거 창업실패 경험이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6].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창업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장체험이 점포의 운영성과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자영업 창업자의 성과를 다룬 선행연구는, 창업자의 전문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7], 창업자의 능력 및 태도가 점포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8], 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이 점포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9]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자의 전문성이나 능력 및 태도, 창업가정신의 원인변수로서 창업교육이나 현장체험까지 포함해 다룬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하다.

창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창업교육 이수자의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창업교육이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창업교육은 점포 혹은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자의 역량이 함양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창업교육이 창업자의 역량을 매개로 해서 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자의 역량은 크게 지식 및 기술인 창업 스킬과 창업자의 마음가짐 및 행동인 창업가정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은 창업자의 창업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창업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게 한다[10]. 창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모험적, 친취적으로 자원을 재분배, 재결합하는 정신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11],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개인의 창업가적 잠재력이 고취되고, 리

스크 회피적인 편견을 타파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특정업종에 몰입으로써 스스로 과당경쟁의 늪에 빠지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자신만의 차별성을 갖추도록 장려한다.

본 연구는 국내 자영업의 높은 실패율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영위에 기여하고자, 자영업 창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전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이 창업자의 역량인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을 함양시켜 실제로 점포의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업종, 점포규모, 점포 운영기간, 상권 및 입지 등이 다양한 274명의 점포창업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한다. 그리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에 관한 이론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은 모두 창업자의 역량을 높여주는 요소로서, 창업자의 역량 중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역량 외에 후천적으로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2.1.1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민간교육기관, 대학, 창업관련 공공기관, 정부 등에 의해 모두 제공될 수 있다[2]. 창업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과목은 크게 창업이론에 관한 과목, 창업실무에 관한 과목, 사례연구에 관한 과목, 창업 후 경영에 관한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론교육은 강의실에서 강사의 강연을 통해 아이템의 선정,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점포입지 및 상권분석, 법률 및 회계 관련 지식, 인력관리, 창업가로서의 자세, 창업가정신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사례 등을 배우고 상호 토론을 한다[2].

실습교육은 이론교육과 함께 일반적으로 창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교육법으로, 교사의 시범법이 가장 대표적이다[4]. 시범법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반응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이를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onstadt (1985)의 ‘New School 이론’은 창업교육을 창업과정에 기초하여 설계해야 하며, 그 설계과정은 지식과 실습을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다[12]. McMullan and Long(1990)의 ‘전략적 독창성 모형’은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사업경영상력, 창조성과 혁신이 창업과정에 중요하며 이를 위한 창업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3]. Vesper(1990)의 ‘창업관 이론’은 창업의 성패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창업교육의 기본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14]. Shapero and Sokol(1982)의 ‘창업가적 사건 개념(Entrepreneurial Event Concept)’은 창업 성공에 앞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서 ‘사업 기회’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 기회를 찾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업 기회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15].

실습교육을 중시한 선행연구로는 M. Polanyi의 ‘묵지이론(Tacit Knowledge Theory)’이 있다. 언어로 표현되는 부분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암묵적인 차원의 부분을 ‘묵지(Tacit Knowledge)’라 하면서 묵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인식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6].

국내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한길석(2007)은 국내 창업교육이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창업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분야로 창업 동기 유발, 창업지식, 창업기술, 창업전략 및 성과 등을 제시하였다[17].

2.1.2 현장체험

체험 혹은 경험에 관한 연구는 조직행동이론 등 경영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C. Argyris와 D. Schon의 조직학습이론에서는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의 경험효과를 강조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누적된 경험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생산 능력이 제고된다고 제시하였다[18-21].

학습곡선이론은 1920년대 T. P. Wright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론으로서, 처음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될수록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가, 일반 기업들에 의해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고, 이후 경영학, 심리학 등에서도 연구되었다[22].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자의 체험 혹은 경험에 대한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타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창업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창업자의 역량에 관한 이론

창업자의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제품 및 서비스, 물류, 점포운영, 종업원 관리, 리더십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 도전정신, 자신감, 창업의지, 창의성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지식과 기술에 관한 것은 ‘창업스킬’로 도전정신, 자신감, 창업의지, 창의성 등은 ‘창업가정신’으로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창업스킬

창업스킬은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23]. 일반적으로 스킬은 도구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업무에 필요한 숙련된 기능, 요령, 노하우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스킬은 기능공과 같이 한두 가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숙련해야 하는 분야는 물론, 수행해야 할 업무가 복잡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창업에서도 필요하다.

창업스킬 연구는 Schein(1987)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창업스킬은 창업 기회에 대한 파악과 인식 능력, 창업 이해도와 사전 준비능력,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 전문분야별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획득, 전반적인 창업 진행 능력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23].

창업스킬은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와 다양한 교육내용을 구비함으로써 학습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면 학습자의 창업스킬을 증가시켜 성공적인 창업가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10].

특히 창업스킬은 현장체험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현장체험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체험을 하면 시행착오를 통해 실제 사업운영과정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2.2.2 창업가정신

창업가가 성공적으로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다. 창업가정신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모험적, 진취적으로 자원을 재배분, 재결합하는 정신, 활동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11]. 여기서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나 ‘새로운 조직의 설립 행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 내에서 ‘제품, 기술, 생산공정, 조직구조 등의 개선’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이 때 조직이라 함은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 모든 형태의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가정신은 기업을 새로이 창업하는 개별적인 사

람에게는 물론, 기존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 나아가 조직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24]. 현재 창업가정신은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등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25].

학계에서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에 대해 ‘기업가정신(企業家精神 혹은 起業家精神)’, ‘창업가정신(創業家精神)’, ‘앙트러프러너십’ 등 다양한 국문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내 학자들이 ‘entrepreneurship’을 번역하면서 일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업가정신(企業家精神)’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경영학상의 행위주체인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와 혼동을 초래하며, 일부 학자들은 ‘起業家’로 표기하여 ‘企業家’와 구분하고자 하고 있으나, 국문과 한문을 병기하지 않는 요즈음에는 이러한 한자상의 구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entrepreneur’의 어원인 프랑스어 ‘entreprendre’가 ‘착수하다’,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초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업가(businessman)’와 구별되는 고유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24].

우리말의 ‘창업(創業)’(創: 비롯할 창, 시작할 창)이 상업적 의미는 물론 왕조창업 등 비 상업적 의미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가(創業家)’라는 용어가 entrepreneurship의 어원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이라 판단된다.

일부 학자들은 ‘ship’을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entrepreneurship을 ‘앙트러프러너십’[26], ‘앙트러프러너십’[25], ‘앙트러프러너십’[27] 등으로 음역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0년 국내 최초로 entrepreneurship 학부과정을 개설한 숙명여자대학교도 학과명을 ‘앙트러프러너십’으로 음역해 명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음역은 단어 자체가 길고 이 용어가 불어권에서 유래하여 발음의 국문표기가 학자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24].

또한 강병오(2011)는 우리말 중에 정신과 행동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신(精神)’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되는 행동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창업가정신이라는 표기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강병오(2011)의 연구에 따라 ‘창업(創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entrepreneur’를 ‘창업가(創業家)’로, ‘entrepreneurship’을 ‘창업가정신(創業家精神)’으로 표기하고 대학의 학과명으로서 ‘entrepreneurship’을 ‘창업학(創業學)’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012년 6월 서

을대학교 공과대학에 설립된 ‘창업가정신센터 (Entrepreneurship Center)’ 역시 창업가정신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창업가정신을 매개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entrepreneurship’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2.3 점포의 운영성과에 관한 이론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창업가 역량이 함양되면 이는 점포의 운영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자영업 창업자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강개석·이종건(2010)은 창업자의 전문성은 창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7]. 강병오 외(2010)는 창업자의 능력 및 태도가 점포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 윤성욱·박성일(2008)은 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점포의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점포의 운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회계상의 지표만을 측정하기보다는 점포주의 성취감, 고객의 만족도 등 재무적 지표도 함께 측정하는 것이 점포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재무적 성과 측정만으로는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다[28]. 특히 창업가정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재무적 성과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9,30].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 현금유동성, 자본수익률, 총자산증가율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재무적 경영성과 지표로는 신제품개발, 상품의 품질, 시장 개척, 연구개발, 인력개발, 직원의 업무만족도, 고객만족도, 장기지향성 등이 사용되고 있다[9,29].

다만 성과측정 방법의 경우, 점포주는 개인의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인식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재무적 지표가 불확실하거나 자료공개 의무가 없어 자료 노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대안적 방법으로서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31].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점포 창업자의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창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세분한다.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함양되는 창업가의 역량인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을 매개변수로 설정한다. 점포의 운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세분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2 가설 설정

3.2.1 창업교육이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창업관련 다양한 지식과 기술, 즉 창업스킬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창업스킬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10]. 창업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창업관련 지식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창업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갖춰 창업역량이 함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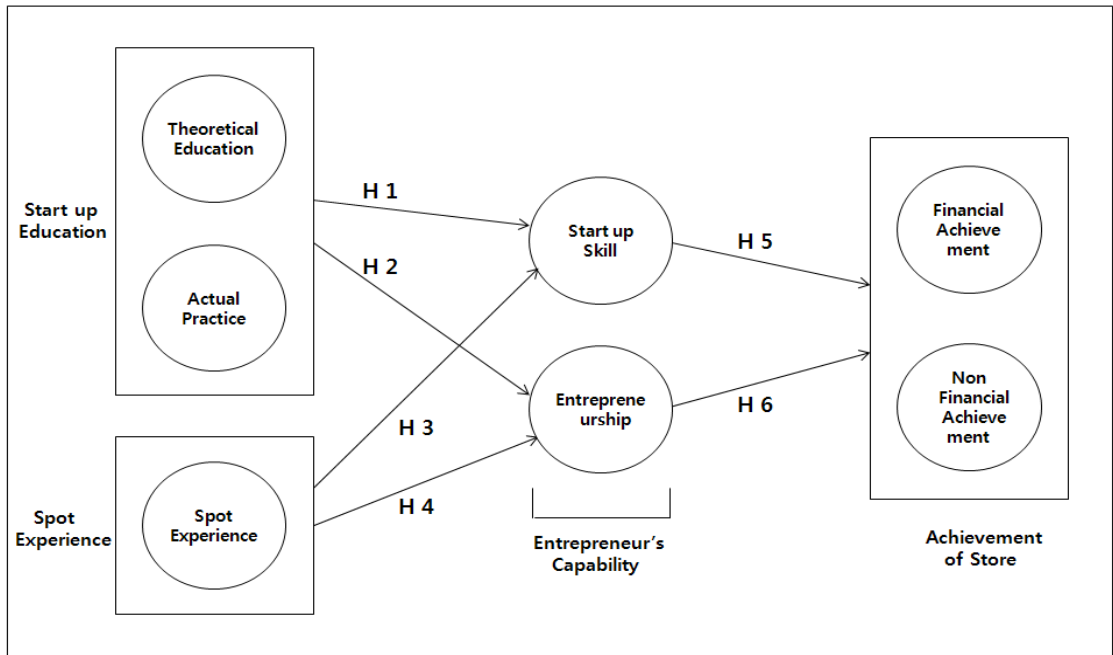
박영수·고재윤(2011)은 음식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창업 전 교육을 이수하고 난 예비창업자의 교육만족도가 창업스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23], Robinson and Sexton(1994)은 자영업 창업자가 창업교육을 받을수록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1].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창업교육은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이론교육은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실습교육은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교육이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Garavan and O’Cinneide(1994)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과 진취성, 계산된 위험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3]. Hostager and Decker(1999)[32], Raichaudhuri(2005)[5]의 연구 역시 창업관련 교육이 창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윤자(2002)는 요리학원의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경험자가 교육 미경험자에 비해 도전의지, 성공의지, 혁신의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입증하였다[4].

이처럼 창업교육은 개인의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업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술을 가르쳐 새로운 기업의



[Fig. 1] Research Model

창업이나 기타 창업가적 활동에 나서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 가설 2: 창업교육은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이론교육은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실습교육은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현장체험이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동종 혹은 유사업종에서의 업무경험이나 창업경험, 또는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경험은 창업자에게 풍부한 현장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제공해 준다. 또한 현장경험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었을 때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 특히 경험은 논리적인 사고 과정보다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급박한 돌발 상황에서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22].

Robinson and Sexton(1994)은 자영업자가 사전 업무경

험 및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자영업자의 창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1], Cooper and Gascon(1992)은 업종에 대한 경험은 창업가로 하여금 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품 및 시장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업관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33].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3: 현장체험은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현장체험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과거 동종 혹은 유사 업종에서의 업무경험이나 창업경험은 그 경험이 좋은 나쁜 창업자로 하여금 과거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과거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게끔 의욕을 다지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갖게 하는 자극적 역할을 할 것이고, 성공한 경험은 이를 바탕으로 계속 성공해 가도록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Cardon and McGrath(2008)는 창업자의 과거 창업실패 경험이 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6]. 창업실패 경험이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를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운자(2002)는 외식업종에 경력에 있는 사람이 도전의지, 혁신의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입증했다[4].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4: 현장체험은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창업스킬이 점포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Baum and Locke(2004)는 기업 창업가의 창업스킬이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34]. Herron and Robinson(1993) 역시 벤처기업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생 벤처기업 창업가의 창업스킬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35].

이러한 연구결과는 점포창업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점포 창업가가 자신의 창업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기술을 갖추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창업가에 비해 경쟁력을 높여 점포의 운영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5: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은 점포의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1: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은 점포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2: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은 점포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창업가정신이 점포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윤성욱·박성일(2008)은 자영업 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이 점포의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Zahra(1991)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측정된 창업가정신이 수익성, 성장성으로 측정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했고[36], 최용호 외(2003)는 창업가정신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37].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제품 및 서비스와 점포운영에 혁신을 기하고, 경쟁 점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 위험을 계산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투자나 시장 발굴에 과감히 나설 것이다. 그 결과 점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중장기적인 안정을 지향함으로써 비재무적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6: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은 점포의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1: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은 점포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2: 점포창업자의 창업가정신은 점포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은 Garavan and O'Cinneide(1994) ([3]), Hostager and Decker(1999)([32])의 연구를 토대로 공공교육기관, 대학, 민간교육기관을 불문하고 창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의 창업교육이라 정의한다.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창업교육기관인 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강의실, 교육장, 현장점포 등 불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은 점포창업자가 창업 전에 받은 창업교육에 한정한다. 그리고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크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이론교육은 강의실 등에서 강사로부터 배우는 창업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창업가정신 등에 관한 교육이고, 실습교육은 교육장 혹은 현장점포에서 일정기간 진행되는 실습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설문문항에서는 창업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현장체험은 Robinson and Sexton(1994)([1])과 Ucbasaran et al.(2003)([38])의 연구를 토대로 창업자가 창업한 업종과 동종 혹은 유사 업종에서의 과거 업무 경험, 그리고 창업자가 창업한 업종에 관계없이 창업자가 과거에 창업해 본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창업을 염두에 두고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불문한다. 또한 창업교육기관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체험이 아니라, 창업자

가 실제 상황에서 일하면서 직접 업무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창업자가 직접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제 점포에서 일정기간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현장체험을 하는 경우는 물론, 창업 전에 경험했던 동종업종 혹은 유사업종 내에서의 업무 경험, 그리고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에 관계없이 창업해 본 경험이 있다면 모두 현장체험에 포함한다. 그러나 아무리 실제 점포에서 직접 음식 조리 등을 해본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본 연구에서 현장 체험이 아니라 창업교육 중 실습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체험 역시 현장체험을 한 기간, 체험의 정도 등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창업스킬은 Herron and Robinson(1993)([35]), 박영수·고재윤(2011)([23])의 연구를 토대로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을 이수하고 난 후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정의한다. 창업 기회에 대한 파악과 인식 능력, 창업 이해도와 사전 준비능력,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 전문분야별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획득, 전반적인 창업 진행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스킬 역시 자신의 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였다.

창업가정신은 강병오(2011)([24]), 박영수·고재윤(2011)([23])의 연구를 토대로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을 하고 난 후 함양된 점포창업자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신감 등으로 정의한다. 창업가정신 역시 자신의 창업가정신에 대해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점포의 운영성과는 윤성욱·박성일(2008)([9]), 이용기 외(2009)([28]), 강병오(2011)([24])의 연구를 토대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구분해 설정하였다. 재무적 성과로서 점포매출액, 투자수익률, 순이익, 고객수 등을 설정했고, 비재무적 성과로서 점포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 점포종업원 만족도, 점포창업자 자신의 성취감 및 만족도, 점포의 성장성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점포의 운영성과는 점포창업자로 하여금 입지, 규모, 업력 등 조건이 비슷한 동종 혹은 유사업종의 점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떠한지를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상 변수 각각의 측정항목은 1점(없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의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2 연구조사방법

본 연구는 점포를 오픈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점포 창업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식, 도소매, 서비스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점포의 규모, 상권 및 입지, 점포비 등 창업비용 등을 불문하되, 연구의 편의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 점포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점포를 직접 창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자를 대신해 점포를 운영하는 점장, 매니저, 창업자 가족 등은 배제하였다. 2012년 9월 22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설문지를 배포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285개의 설문지 중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1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74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통계분석 하였다.

5.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5.1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변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을 하였으며,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여러 문항들을 통해서 측정된 다수의 잠재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체 모형을 한 번에 측정하기 보다는 전체 모형을 나누어서 모형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39], [40], 외생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내생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나누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1.1 외생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의 외생변수 중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변수는 점포창업자의 창업 전 창업교육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그리고 점포창업자의 창업 전 ‘현장체험’이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수를 결정하는 절삭기준은 아이겐값(Eigen Value) 1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0.5 이상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변수의 설명력은 81.2%, 요인적재값은 0.5 이상이었다. Kaiser-Meyer-Olkin(KMO) 적합성 검증결과 통계값은 0.77,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1018.43(df=102), $p=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한 표본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이론교육’ 5개 문항 중 1개 문항, ‘실습교육’ 4개 문항 중 1개 문항, ‘현장체험’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은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제되었다.

이어서 각 요인별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2개 이상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항목간에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값은 0.7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Exogeneous Variables

Item	Variable	Factor1	Factor2	Factor3	Cronbach's α
Theoretical Education	Education1	.931			0.762
	Education2	.907			
	Education3	.884			
	Education4	.869			
Actual Practice	Practice1		.914		0.810
	Practice2		.889		
	Practice3		.870		
Spot Experience	Experience1			.881	0.770
	Experience2			.840	
	Experience3			.817	
Eigen Value		7.112	3.157	1.481	
Explanation(%)		54.290	20.526	6.384	
Accumulate Explanation (%)		54.290	74.816	81.200	

5.1.2 내생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의 내생변수 중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변수는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함양한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 그리고 점포의 운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이다. 요인분석에서 절삭기준은 아이겐값 1을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변수의 설명력은 78.1%, 요인 적재값은 0.5 이상이었다. Kaiser-Meyer-Olkin 적합성 검증결과 통계값은 0.851,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1020.847(df=104), p=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한 표본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창업스킬’ 6개 문항 중 3개 문항, ‘창업가정신’ 6개 문항 중 2개 문항, ‘재무적 성과’ 4개 문항 중 1개 문항, ‘비재무적 성과’ 5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타당성을 저해하여 배제되었다.

이어서 각 요인별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값은 0.7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Endogenous Variables

Item	Variabl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ronbach's α
Start up Skill	Skill1	.789				0.792
	Skill2	.753				
	Skill3	.730				
Entrepreneurship	Ship1		.843			0.790

	Ship2		.831			
	Ship3		.822			
	Ship4		.816			
Financial Achievement	Achiev1			.782		0.759
	Achiev2			.750		
	Achiev3			.731		
Non Financial Achievement	Achiev1				.775	0.721
	Achiev2				.746	
	Achiev3				.722	
	Achiev4				.705	
Eigen Value		7.205	2.965	1.522	1.024	
Explanation(%)		47.796	19.660	7.829	2.830	
Accumulate Explanation (%)		47.796	67.456	75.285	78.115	

5.1.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AMOS 5.0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하였다. 외생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142.619(df=83, p=0.00)$, GFI=0.910, AGFI=0.902, NFI=0.924, RMR=0.027로 적합도 지수가 모두 높았다. 내생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도 $\chi^2=158.603(df=92, p=0.000)$, GFI=0.921, AGFI=0.901, NFI=0.931, RMR=0.044로 적합도 지수가 모두 높았다.

5.2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로 설정한 기본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검정 통계량은 396.794, 자유도는 248(p=0.00)로 나타났다. GFI=0.913, AGFI=0.911, NFI=0.937, RMR=0.039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 및 가설 검증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Hypothesis			Standardization Estimation	C.R.	p	Adopt
H1	H1-1	Theoretical Education → Start up Skill	-0.358	-1.287	0.394	Dismiss
	H1-2	Actual Practice → Start up Skill	0.317	2.558	***	Adopt
H2	H2-1	Theoretical Education → E Ship	0.254	2.077	0.019	Adopt
	H2-2	Actual Practice → E Ship	0.072	1.995	0.124	Dismiss
H3	H3	Spot Experience → Start up Skill	0.340	2.103	0.010	Adopt
H4	H4	Spot Experience → E Ship	0.268	2.250	0.009	Adopt
H5	H5-1	Start up Skill → Financial Achievement	0.236	2.391	0.013	Adopt

	H5-2	Start up Skill →Non Financ Achieve	0.244	3.508	***	Adopt
H6	H6-1	E Ship →Financ Achiev	0.212	3.660	***	Adopt
	H6-2	E Ship →Non Financ Achiev	0.315	3.135	***	Adopt

*** ≤ 0.001

채택된 가설과 기각된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이 점포창업자의 창업스킬 및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론교육은 창업스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습교육은 창업스킬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이론교육은 창업가정신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습교육은 창업가정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장체험은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에 모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이 각각 점포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창업스킬은 점포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각각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가정신은 점포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각각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가정신은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6.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들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중 이론교육은 창업스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실습교육이 창업스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영업 창업자들이 실제 창업현장에서는 이론을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이론교육은 창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습교육은 창업가정신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는 도전, 혁신을 의미하는 창업가정신의 뜻이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지만, 이론을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가정신을 발휘해 성공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 실제 창업 시 창업가정신을 발휘하게 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장체험은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에 모두 각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성공경험이든 실패경험이든 현장체험은 창업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의 현장체험을 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창업교육도 현장체험과 유사한 실습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넷째, 창업스킬은 점포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각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가정신도 점포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각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성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창업가정신이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점포의 안정적인 성장과 창업자의 심리적 성취감을 위해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1].

6.2 연구 공헌

본 연구의 공헌은 이론적 공헌과 실무적 공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론적 공헌으로 첫째, 선행연구가 주로 창업교육, 현장업무경험, 창업스킬, 창업가정신, 성과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상호관계를 분석한 것들이지만, 이들 간의 관계를 모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변수인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이 매개변수인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을 함양하여 결과변수인 점포의 운영성과를 높이는 일련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선행변수인 창업교육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세분하고, 현장체험도 선행변수에 추가함으로써 창업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결과변수인 점포의 운영성과 역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세분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한 단계 더 심화시킨 공헌이 있다고 하겠다.

실무적 공헌으로는 첫째,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자영업 안정을 위해, 점포창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최종 결과변수를 점포의 운영성과로 설정해 그 영향요인들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무적 공헌도가 높다. 둘째,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고,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인턴제 도입 등 현장체험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3 연구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향후 과제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설문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창업교육 기간이나 현장체험 기간, 그리고 재무적 성과 등은 실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측정방법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점포창업은 크게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분류하기 위해 규정한 19개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업종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이 점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상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업종별 구분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점포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 등 창업자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점포의 성과는 창업자의 역량뿐 아니라 상권 및 입지, 점포의 규모 등 미시적 창업환경과 경기변동, 정부정책 등 거시적 창업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요인을 추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와 독립창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정하였다. 가맹점 창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독립창업자보다 더 많은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대책은 가맹본부의 우산 아래에 있지 않은 독립창업자들에게 더 필요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자영업 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이들을 분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서울 및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점포들을 선정하였다. 향후 전국의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각 지역별 창업교육의 현황과 점포의 운영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Peter B. Robinson, Edwin A. Sexton, "The Effect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n Self-employment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9 No 2, pp.141-156, 1994.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94\)90006-X](http://dx.doi.org/10.1016/0883-9026(94)90006-X)

[2] Youn Jung Kim, Byung Soo Noh,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Korea Digital Policy Association*, Vol 10 No 6, pp. 23-31, 2012.

[3] Thomas N. Garavan and Barra O'Cinneid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 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 18 No 8, pp.3-12, 1994.
DOI: <http://dx.doi.org/10.1108/03090599410068024>

[4] Yoon Ja Kim, "Education from Cooking School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Opening Restaurant Business," *Graduate School of Kyungki University*, Master Thesis, 2002.

[5] Anjan Raichaudhuri, "Issu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Diamond Harbour Road, Joka Calcutta*, 2005.

[6] M. S. Cardon and R. G. McGrath, "When the going gets tough toward a psychology of entrepreneurial failure and re motiva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Wellesley, MA, 1999.

[7] Gae Seok Kang, Jong Geon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Franchise Startup and Specialized Startup on the Success of Startup Business: Based on Self Employed Small Business,"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Academic Conference*, 2010.

[8] Byung Oh Kang, Jung Hee Lee, Jin Soo Kim, "A Study on Policies and Strategies for Fostering Franchise Industry by Analysing Critical Success Factors of Franchise Business", *Research of Distribution*, Vol 14, No 5, pp. 153-184, 2010.

[9] Sung Wook Yoon, Sung Il Park,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f Franchisees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Research of Distribution*, Vol 13 No 3, pp. 101-126, 2008.

[10] Yong Tae Kim,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 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11] J. G. Covin and D. P. Slevin,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 1, pp.7-25, 1991.

[12] R Ronstadt,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Summer, pp.7-23, 1985.

[13] W. E. McMullan and W. Long, "Developing Entrepreneurial Ventures", *Harcourt Brace Jovanovich*, San Diego, 1990.

- [14] Karl H. Vesper,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0.
- [15] Albert Shaper, and Lisa Sokol,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 [16] Mi Kyung Yang, "Curriculum and Instruction", Education Science, Seoul, 2008.
- [17] Kil Seok Han, "The Systematization Pla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 Management Education Association, Vol 47, pp.379-405, 2007.
- [18] Lung Been Lee, "The Effect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6.
- [19] Yun Ho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Industrial Relations and Knowledge Constructions with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ie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orea Logos Management Association Spring Academic Conference, pp. 145-166, 2009.
- [20] Yong Tae Ba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Learning on Organizational Change and Performance in Local Public Agenc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2.
- [21] Dong Hwan Kim, "Theories of the Individual Learning and the Organizational Learning", Research of Industrial Management, Vol 22, No 2, pp. 183-202, 1999.
- [22] Kyu Chul Kang, "A Study on the Learning Curve and Productivities", Graduate School of Myong 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5.
- [23] Young Soo Park, Jae Youn Ko, "The Effects of Prospective Food Service Entrepreneurs Psychologic Characteristics upon the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Skill, Will to inaugurate an Enterpris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 14 No 1, pp. 157~179, 2011.
- [24] Byung Oh K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EO's Entrepreneurship in SMEs on Business Performance: Franchise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ung 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1.
- [25] Chun Woo Lee, "A Study on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9.
- [26] Chun Youp Park, "A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in Korea," Research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Vol 15 No 2, pp.79-113, 1993.
- [27] Young Rai Kim, "A Study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History of Management, Vol. 35, pp.157-181, 2004
- [28] Yong Ki Lee, Tae Yoo Chun, Sung Hoon An, "The Effect of Trust and Relationship Learning on Long Term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in Food Service Franchise Industry", Korea Distribution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pp. 151-170, 2009.
- [29] Jeong Dai G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ore Competence, Non Financial and 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s of Hotel Industry," Research of Tourism, Vol 23 No 4, pp.259-277, 2009.
- [30] Noh Yoon Park,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Entrepreneurship as a Organizational behavior and Achievement," Research of Personal Management, Vol 24 No 1, 253-287, 2000.
- [31] Jae Hoon Rhee, Jung Ho Lee, Jung Hyun Yoon, "Relationships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Formaliz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22, No 1, 91-118, 2007.
- [32] T. J. Hostager and R. L. Decker, The Effects of an Entrepreneurship Program on Achievement Motivation: A Preliminary Study, SBIDA, San Francisco, CA: Small Business Institute Director's Association, 1999.
- [33] A. C. Cooper, and Gimeno-Gascon, F.J. Entrepreneurs, processes of founding, and new-firm performance. In: Sexton, D.L., and Kasarda, J.D., ed., The State of the Art in Entrepreneurship. Boston: PWS-Kent, 1992.
- [34] J. R. Baum, and Locke, E. A.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traits, skill, and motivation to subsequent venture grow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 587 - 598, 2004.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89.4.587>
- [35] Lanny Herron, Richard B. Robinson,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8 No 3, pp.281-294, 1993.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93\)90032-Z](http://dx.doi.org/10.1016/0883-9026(93)90032-Z)
- [36] S. A. Zahra,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6, pp.259-285, 1991.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91\)90019-A](http://dx.doi.org/10.1016/0883-9026(91)90019-A)
- [37] Yong Ho Choi, Jin Kyo Shin, Seung Ho Kim, "The Impact of Top Management, Strategy, and Structure on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 Research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Vol 25 No 2, pp.103-125, 2003.
- [38] D. Ucbasaran, Lockett, A., Wright, M., Westhead, P., Entrepreneurial founder teams: factors associated with

member entry and exi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 (2), 107 - 128, 2003.

DOI: <http://dx.doi.org/10.1046/j.1540-6520.2003.00034.x>

[39] Peter M. Bentler and Chih-Ping Chou,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16, No. 1, pp. 78-117, 1987.

DOI: <http://dx.doi.org/10.1177/0049124187016001004>

[40] Patrica M. Doney and Joseph P. Cannon,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rust in Buyer-Seller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Vol. 61, No. 2, pp. 35-51, 1997.

DOI: <http://dx.doi.org/10.2307/1251829>

[41] Choon Hwa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tore Entrepreneur's Start up Education and Experience before Start up to Performance of Store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3.

윤 형 보(Hyoung Bo Yun)

[정회원]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석사)
- 2010년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창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97년 ~ 현재 : (주)엔씨웍스 창업 및 사장
- 2002년 ~ 현재 : (주)헬리오스에 프랜비 창업 및 사장

<관심분야>

창업가정신, 창업전략,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김 춘 화(Choon Hwa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중앙대학교 창업학 석사

<관심분야>

창업가정신, 소상공인창업, 프랜차이즈

강 병 오(Byung Oh Kang)

[정회원]



- 2011년 2월 : 중앙대학교 창업학 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2011년 9월 ~ 현재 : 한국창업포럼 회장
- 2002년 10월 ~ 현재 : (주)FC창업코리아 대표이사
- 2003년 1월 ~ 현재 :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자문위원

<관심분야>

창업가정신, 창업정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프랜차이즈